

향후 한일관계에 요구되는 것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올 2월에 일본의 초당파 의원(自民、民主、公明、社民) 17명은 취임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을 뵈었습니다. 서민적이며 활기 넘치는, 매력적인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세상을 밝게 만드셨네요”라고 했더니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한일양국에서 다양한 정책과제가 등장하고 양국정부는 대응에 부심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에서 항상 있는 일이고 곤란한 과제에 도전하여 극복해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셔널리즘」에는 3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자긍심의 내셔널리즘」입니다. 즉 자국의 문화나 독자성에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내셔널리즘」입니다. 둘째는 「경쟁하는 내셔널리즘」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고 올림픽에서 경쟁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좋은 내셔널리즘」입니다. 셋째는 「싸우는 내셔널리즘」. 영토나 지배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올바르게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싸우는 내셔널리즘」으로 감정을 격돌해서는 안 됩니다. 일국의 리더는 국민의 내셔널리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는 적어도 1할이나 2할은 타국의 주장과 입장을 생각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국에서 내셔널리즘이 분출했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내셔널리즘인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에 방한했던 때의 의원들은 당파를 넘어 근린 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들 의원들과 앞으로도 같은 주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협력해 간다면 한일양국은 더더욱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한일관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역시 장래의 꿈은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들은 세계인구의 과반수가 아시아인이라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까지 포함하여 지적 레벨의 높은 수준의 과반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제도 아시아가 세계GNP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これからの日韓関係に求められるもの

加藤 紘一

本年2月、日本の超党派議員(自民、民主、公明、社民) 17名で、就任直前の李明博大統領にお会いした。庶民的でエネルギーな、魅力的な大統領が生まれたなという感じを受けた。私が「あなたは予算をまだひとつも使わないうちに世の中を明るくしましたね」と言ったら、喜んでおられたのを覚えている。

その後、韓国でも、日本でも様々な政策課題が持ち上がり、両国政府はその対応に追われているが、それは政治の常であり、困難な課題に挑戦し克服していくのがリーダーの役割である。そ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狭いナショナリズムに捉わ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だ。

「ナショナリズム」には、3つの形があると思う。まず、第一は「誇るナショナリズム」。つまり自国の文化や独自性を誇ること。これは「よいナショナリズム」だ。第二は、「競うナショナリズム」。経済発展で競争したり、オリンピックで競ったりするもの。これも「よいナショナリズム」。第三は、「闘うナショナリズム」。領土や支配権をめぐる競争が繰り広げられるもので、一歩間違えば国を誤った方向に導く。この「闘う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感情を激突させてはならない。

一国のリーダーが、国民のナショナリズムを大切にせねばならないのは当然だ。しかし同時に、心のスペースの中に、少なくとも1割か2割は他国の主張や立場を考慮するゆとりをもつことが肝要だろう。また、自分の国にナショナリズムが巻き起こったとき、それがどのような種類のものか、冷静に見つめる姿勢を持たねばならないと思う。

2月に訪韓したときの議員は、党派こそ違え、近隣アジア、特に韓国・中国と

の関係を大切にしたいという議員たちであった。私は、日本において、これらの仲間たちとこれからも同じ主張をしていく。韓国において志を同じくする方々と協力していけば、日韓は、さらに未来志向の関係に進んでいけるものと確信している。成熟した日韓関係を追求できるよう、今後も努力していきたい。

近々、世界の人口の約半分がアジアの人だという時代が来ると思う。それは単に数的に多いというだけでなく、日本、中国、韓国、インドとシンガポール(ベトナムもそうであるが)、知的レベルの強烈に高い半分になるだろうと思う。ということは、当然、経済もアジアが世界のGNPの半分を占めるときが来るであろう。